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8호 [루게 제23110호] 주체99(2010)년 6월 7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 리제일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병삼동지를 비롯한 인민보안부의 지휘성원들과 농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농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인민보안부장 주상성동지가 대동강과수종합농장능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하시였다.

내무군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솟아난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이다.

조선인민내무군의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11월 새로 건설된 과수종합농장에 찾아오시어 대규모의 농장으로 확장할데 대하여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반년사이 에 하나의 대자연개조사업과 맞먹는 과수원능력확장건설을 끝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백정보에 달하는 과수원의 토지정리와 수십km에 달하는 도로 및 수로건설, 연 4,000여리에 달하는 전호식구멍이파기, 수십만대의 과일나무

지지대세우기, 수백만그루의 과일나무심기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불과 몇개월 사이에 성과적으로 끝내시였다.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규모의 과수농장이 일떠섬으로써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공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경도양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오랜 시간에 걸쳐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능력확장진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끝간태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

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대과수농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사나운 추위를 이겨내며 몇개월사이에 종전의 5배에 달하는 거창한 능력확장공사를 끝낸것은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재부를 마련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적으로 꾸러진 과수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최상급의 수준에서 건설된 이 농장이야말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드디어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같은 대규모의 과수농장건설은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수행할수 있는 대업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야말로 새 세기의 면모에 맞는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라번지는 거세찬 대고조의 불길속에 조국의 모습은 날을 따라 변모되고있으며 이 눈부신 전변은 멀지 않아 펼쳐질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확고히 예고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현대적으로 건설된 과일보관고와 사과말린편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새로 건설한 능력이 큰 과일보관고와 사과말린편공장은 모든 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해 움직이는 최첨단수준의 과일보관 및 가공기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과일보관고와 세척으로부터 절단, 말리우기,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하나의 자동흐름선체계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사과말린편공장을 돌아보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보관 및 가공시설들이 갖추어진 결과 우리 인민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과일가공품을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과일공급뿐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농장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능력 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과수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수령님의 이민위천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수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수업은 토양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땅의 지력을 높일 때만이 질 좋은 과일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과수원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건설중에 있는 돼지공장건설을 빨리 끝내어 더 많은 유기질복합비료를 과수밭에 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일의 정당수확고를 높이자면 과일나무관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과일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수업은 품이 많이 드는 부문이므로 과수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현존기계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과수밭관리에 효율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생산된 과일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과따기를 제철에 제때에 하며 과일보관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과일가공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농장인것만큼 련관부문들에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농장에 필요한 기계, 농약, 비료를 비롯한 설비자재들을 원만히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인민의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의 풍만한 레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내무군의 군인건설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대의 거세찬 숨결에 발을 맞추어 조국의 흥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거대한 공헌을 하고있는데 대해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따뜻한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과일대풍의 꽃다발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스럽게, 몇몇하게 들어설 총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능력 확장 된 대 동 강 과 수 종 합 농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해상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대잠수함훈련을 벌리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니스》구축함, 핵잠수함 등 방대한 기동타격무력이 참가할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미국본토와 대평양지역 미군부대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진급이동전개되고 있다. 얼마전 미공군 《F-22A 랩터》스텔스전투기 12대가 미국본토로부터 일본 오키나와의 가미나미공군기지에 이동전개되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강행하려는 연합대잠수함훈련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 군사적간섭행사를 전제로 한 극히 모험적인 핵전쟁도박놀음으로서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피괴들은 저들이 남조선 《천안》호침몰사건을 결코 서해상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잠수함 기동훈련을 감행하는 등 무모한 군사적용병을 전제없이 강행하고있다. 더욱이 주목되는것은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인 《북조선위협》을 막을대 대한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명령》이 미군사령관들에게 내려진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미제가 남조선피괴들과 대규모의 연합대잠수함훈련을 감행하려는것은 우리에 대한 엄청난 군사적도발로서 합선침몰사건으로 조성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대로 격화시켜 전쟁의 불길에 뜨르키기 위한 극히 무분별한 책동이다.

미제는 방대한 기동타격무력을 동원

하여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함으로써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임의의 시각에 그것을 복습을 위한 실전으로 전환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가 이번 훈련에 추가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규모를 전제없이 확대하려고 기도하고있다. 연합대잠수함훈련을 감행하려는 주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문어구로 육박하고있다.

현 사태는 《천안》호침몰사건 조작의 막후조종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그대로 확증해준다.

피괴합선침몰과 관련한 《조사결과》라는것은 철두철미 남조선피괴들이 미국의 승인과 비호하에 꾸며낸 반공화국모략구, 남조선구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협의자》로 락인하고 그에 맞게 《사건조사》를 유도하였고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북조선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은 이 각본의 순차를 밟아가고있다. 다시말하여 미제는 지금까지의 끈질긴 반공화국극위위모략전을 통해 우리가 《협의자》라는 국제적어른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저들이 반공화국군사적행동을 실천에 옮겨주지 않을것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불의의 선제공격을 노린 연합대잠수함훈련을 벌리려 하는것이다. 이것은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배후조종자취하는 장본인이 다른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드러내보여주고 있다.

#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징벌과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항거를 면치 못할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리명박역적배당이 극히 모략적이고 도발적인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에 회부하는 놀음을 벌리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6월 6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56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지난 5일 피괴배당은 극히 모략적이고 도발적인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에 회부하는 놀음을 벌렸다.

역적배당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한 《서한》이라는 데서 합선침몰이 우리의 어뢰 공격에 의한것이라는 이른바 《조사결과》를 다시금 꺼내들며 《북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북의 군사적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것을 요청한다.》느니느니 하고 말발하였다.

이에 앞서 리명박역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회의 《기조연설》이라는데서 합선침몰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였다고 떠벌어대면서 반공화국제에 국제사회가 적극 협력해줄것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청난 도발이고 내외어론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특대형도발적인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였다고 떠벌어대면서 반공화국제에 국제사회가 적극 협력해줄것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청난 도발이고 내외어론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특대형도발적인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였다고 떠벌어대면서 반공화국제에 국제사회가 적극 협력해줄것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을 규탄 영국의 정당, 단체들 항의시위

판주인민봉기 30돐에 즈음하여 영국의 정당, 단체들이 얼마전 영국주재 남조선피괴대사관앞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반공화국책동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리었다.

시위에 나선 조선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주재사신연구소, 영국군사정책연구원, 영국인공산당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에 앞서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조직기부 케빈 케인은 30년전

# 인민은 결코 속일수 없다는것을 보여준 《선거》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본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보안법》에 걸려 어떻게 하나 이겨보려고 갖은 칼부림과 부정협잡행위, 지어 합선침몰사건이라는 사상 류메없는 반공화국모략구까지 꾸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참패를 당했다는게 있다.

사실상 《선거》를 노린 모수배당의 책동은 전제없이 아 말하였다.

그들은 《선거》가 막두해오자 그 무슨 《공직기강화법》이니, 《토착비리근절》이니, 《선거사범과의 전면전》이니 하고 떠벌어대며 피괴정찰, 경찰을 비롯한 폭압기구를 총동원하여 민주제에 대한 파쇼적 위협에 약탈하게 매여달랐다.

《경교조》와 공무로조성된 수백명들 그 무슨 《정치활동》을 하였다든 리유로 탄압하고 민주운동에 대한 끈질기 압수수색과 체포수용 등으로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거저거를 발이 굼뜨도록 찾아다니며 그 무슨 《일자리마련》이니, 《대학생복지개선》

이러한 폭압수동이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제거함으로써 《선거》에서 저들패거리들의 《당선》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흉계로써 출몰한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하다.

모수배당은 남조선의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지지를》을 구걸하고 주민들에게 추파도 던지었다. 《한나라당》패들은 이거저거를 발이 굼뜨도록 찾아다니며 그 무슨 《일자리마련》이니, 《대학생복지개선》

이러한 폭압수동이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제거함으로써 《선거》에서 저들패거리들의 《당선》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흉계로써 출몰한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하다.

모수배당은 남조선의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지지를》을 구걸하고 주민들에게 추파도 던지었다. 《한나라당》패들은 이거저거를 발이 굼뜨도록 찾아다니며 그 무슨 《일자리마련》이니, 《대학생복지개선》

# 동족대결에 미친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 《천안》호침몰사건은 남조선당국과 미국의 공모결탁의 산물

에zell아랍사회의당이 미국과 리명박역적배당의 반공화국책동을 규탄하여 5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에zell아랍사회의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비열한 음모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사건의 진상을 세계에 공개하고 조선을 반대하는 감빠니야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과 그 주구들의 음모책동에 전격히 맞서싸우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과 평화애호력량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과 평화애호력량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과 평화애호력량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과 평화애호력량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과 평화애호력량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과 평화애호력량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호소한다.

# 궁색하고 유치한 변명

최근 남조선피괴배당이 합선침몰사건의 모략적진상이 세계의 면전에 점차 드러남에 따라 여론을 수습해보려고 허둥대고있다. 피괴배당이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힌 우리 국방위원회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이리저리거꾸로 시비질해나선것을 보며주고있다.

얼마전 피괴배당은 《북어뢰공격설》의 허황성을 명백한 흔적을 가지고 증명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주장》이니 뭐니 하며 감히 반박하려들었다. 군부패거리들은 《잠수정에 중이뢰의 탑재가 가능하다.》

《잠수정에 중이뢰의 탑재가 가능하다.》느니, 북에서는 《변》이라는것도 《쓴다.》느니 하고 또다시 터무니없는 꾀변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나중에 그 무슨 《조선의 공정성》에 대하여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것은 사실상 그 어떤 새로운것이 아니며 억측과 남조선에 일관된 《조사결과》의 내용을 뒤흔어놓았으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자체가 또 하나의 가소롭기 짝이 없는 궁색한 변명일뿐이다.

합선침몰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미 처벌을 받아야 할 피괴배당이 체면도 없이 사건의 책임을 계속 우리에게 억지로 넘겨쳐주는 놀음을 벌려놓은것을 보면 의외적으로 속이 단단히 썩고 모양이다.

하기는 궁색한 처지에 빠진자들은 이소리저소리 마구 주어씌기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입을 벌리면 리처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피괴배거리들은 의혹투성이인 이른바 《정적증거》에 대한 변명을 곱씹지 않으니 또다시 허는 잡소리만 하여 여론의 조소를 자아냈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어뢰추진부의 《1번》글씨에 대한 설명만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고사하고 제나뎌데로 이것저것 주어댄것이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터 지루레끼도 잡는다는 속담그대로이다. 이것은 오히려 후방면의 대제주를 꾸며낸 투대형변의 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